7강 제목 : 『부정 변증법』

◆ 1교시 아도르노의 세 개의 변증법적 사유

▲ 『계몽의 변증법』 - 지배를 통한 자연으로의 몰락 또는 상처화 과정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난 시간까지『계몽의 변증법』을 나름대로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상처와 유리병 속의 악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몽의 변증법』 부분을 통과한다면 그것이 상처의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나싶습니다.

『계몽의 변증법』의 서문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듯이, 인류가 지난한 세월을 자연과 관계맺으면서, 아도르노의 그런 말을 빌리면, 유보 없는 행복이 가능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고, 그러한 세상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끝에서는 다시 한 번 자유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맹목적인 자연 상태로 퇴행 혹은 쇠퇴해 버렸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지배를 통한 자연으로의 몰락'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오히려 verfallen, 퇴락한 채로 다시 종속되어버린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집 같은 것들이 허물어져버리거나 아니면 죄악, 보통 verfallen이라는 말이 성경 같은데 나오는데 죄에 빠진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말인데요.

나쁜 상태의 자연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적 자연을 개선하고자 했던 프로젝트, 어떤 문명이라는 개념자체도 상처를 껴안게 되는 것이고 문명화의 주체 역할을 했던 개인들도 결국 상처를 껴안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의 상처화 과정 이라든지 주체의 상처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문명화의 과정 아니면 주체화의 과정이라는 말로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설명을 죽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몽의 변증법』이 원어로는 『Dialektik der Aufklärung』인데요.

이 변증법, Dialektik이라는 말이 적어도 『계몽의 변증법』 속에서는 왜 문명화 과정이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행복을 구가하고자 했던 자유가 다시 영어囹圄와 희생의 제도 속으로 빠져 들었나 이런 문제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한 변증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정변증법』- 치유에 대한 사유

『계몽의 변증법』 전체를 상처의 개념으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나, 어떤 상처를 껴안게 되었나, 그리고 그 상처를 껴안음에 있어서 아도르노는 또 종교적 용어를 빌려서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나 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고 본다면, 오늘 정리를 해볼 『부정변증법:Negativ Dialekti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ww.artnstudy.com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변증법은 치유로서의 변증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낼 것인가 할 때, 치유가 사유의 영역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부정변증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도르노- 신좌파로서의 시선

그래서 어쩌면 아도르노의 책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사변성을 안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칸트철학이나 헤겔철학이나, 특히 마르크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 헤겔에 의해서 독일철학으로 정착되었던 이데알리즘Idealism이라는 이상주의 철학 혹은 주체 위주의 철학을 마르크시즘적인 유물론적인 철학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지만 원칙적·근본적인 유물론을 수정하고자 한 신좌파적인 영역에서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근본적인 유물론이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 특히 러시아혁명을 통해서 스탈린 체제에서 완전히 파시즘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공산주의 영역에서는 마르크스의 원론적인 유물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스탈린체제라고 하는 파시즘체제로 건너가는 과정을 보았고요.

서구유럽에서는 6·8운동이나 변혁을 위한 운동이 자본주의적인 시장체제 내지는 권력체계에 의해서 다시 무효화되는 아픔을 껴안으면서 소위 신좌파라고 하는, 유물론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로, 근본적인 유물론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주의라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지만 이전에 수정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서, 신좌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물론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새롭게 현실에 맞게끔 재구성해내고 그 과정에서 이 유물론적 희망을 또한 형이상학적인 영역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어떤 신좌파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도르노도 그 영역에 있습니다.

▲ 아도르노의 '사유' - 정신/물질 두 영역에서 비판적으로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도르노에게는 근본적으로 주체철학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요. 이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 물질관계가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관계가 이 세계를 살만하지 못한 억압사회, 아니면 희생을 지속적으로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영역에 대한 비판과 물질영역에 대한 비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바, 우상금지로 해서 그것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

www.artnstudy.com

고 있지는 않지만 유토피아라는 자유와 행복이 가능한, 인간이 원래 목적으로 삼았던, 계몽의 목적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도착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변증법』이 중요한 것은 아도르노의 세계관이 바로 '사유'를 떠나서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사유가 유토피아적인 상황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상황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사유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위험성이 다름 아닌 유물론의 근본적인 전제로부터 얘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사유를 통해서 아무리 유토피아가 구축된다 한들 그 유토피아적 세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관계를 바꾸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사유에 대한 자기성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사유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 성격을 해체하거나 전통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기 위한, 그리고 제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죽 얘기했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유가 필요해지고, 이 새로운 사유를 방법론화 한 것이 『부정변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정변증법』 강의의 초점은 상처의 치유에 필요한 사유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학은 학위를 주는 대학이 아니라 연구대학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데리다 라든지, 푸코,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강의를 하는 일반 소르본이나 파리1대학에서 8대학까지의 대학들과는 성격이 다른 대학입니다.

이 『부정변증법』은 아도르노가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한 학기동안 특별강연을 초청받아서 하는, 강의록을 정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변증법』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강의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처를 치유할 때 어떤 새로운 사유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변증법』을 몇 단계로 특징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는데, 제가 몇 개의 파트로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몇 개를 정리했습니다.

▲ 인식론적 출발점 - 객체를 추상화한 주객관계

www.artnstudy.com

부정변증법은 어떻게 보면 인식론인데요.『부정변증법』의 근본적인 정초가 있다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얘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래서 주객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요.

아도르노가 일차적으로 칸트철학이든 헤겔철학이든, 전통철학 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요한 모티브중의 하나는 소위 물질적인 것, 혹은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자연적인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정신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신체적인 것, 이 부분을 기존의 어떤 형이상학이나 철학체계는 늘상 추상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객체인데, 그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어로 말하면 게레히츠베어덴Gerecht werden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의 권리나 자격이나 특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자기에게 맞추어서, 다시 말하자면 동일화원칙에 맞추어서 자기화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한편으로는 추상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물질적인 것을 추상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발시킨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 개념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화 과정 속에서 아도르노가 전통적인 철학을 이 폭력의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 대상의 물화는 폭력을 필연적으로 동반함 - 사유와 폭력의 착종

말하자면 동일화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동일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상에 대해서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사유와 폭력의 착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와 폭력의 착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소위 그런 합리성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가, 아니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화 시켜왔는가, 아니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탈신화화 시켜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이 물화원칙(Verdinglichung)이다. 물화시킨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것을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정적인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려면 정지시키고, 딱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것을 딱딱하게, 물화시키면 이미 움직이는 것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고유성은 죽어버리게 되죠.

▲ 자기희생의 과정이 되어 버린 주체화 과정

이 과정에서 자연지배가 합리성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합리적 사유가 그 대상에 대해서 필연

www.artnstudy.com

적으로 물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물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주체의 문제로 건너오게 되면, 소위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혹은, 주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신체성, 이모션(emotion)이든 어펙트(affect), 욕망이든 이런 신체적인 영역들을 고착화시키거나 물화시키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뭐지요?

자기 신체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자기 신체는 자기 일부인데, 자기 일부에 대해서 폭력을 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도르노 말을 따르면 주체화 과정은 자기희생의 과정이었다.

주체가 된다는 과정은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폭력을 자해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자기를 끊임없이 상처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정변증법』의 원칙 - 강한 주체일 것, 그러나 폭력적이지 않을 것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인제 부정변증법이 다름 아닌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 방법론을 추구하는 그러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면 이 주객관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체성을 통해서 객체와 만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도르노에게 특별한 점인데요. 전통적인 철학서 아니면, 계몽의 변증법을 따라서 주체가 객체를 물화시키면서, 결국은 이 물화가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치유하는 방식은 반대의 치유로써 객체가 주체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는 구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될 텐데요.

그러나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부정변증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앞에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더 많은 주체성을 통해서 객체와 만나기입니다. 말하자면 객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것은 주체가 물러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체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또한 '그러나 폭력적이 아니면서'라는 명제와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죠. 그렇죠. 폭력적이 아니면서 주체라고 하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강함과 약함의 변증법

문제는 바로 변증법적으로 아도르노에게 이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하는

www.artnstudy.com

것입니다. 특히 미학이론 들어가게 되면, '예술의 강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술은 아도르노에게 하나의 주체로 여겨집니다. 예술작품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생각을 하고 예술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 주체는 아도르노가 스트롱 서브젝트(Strong subj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주체'다.

그러나 미학이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부드러움, 한없는 약함이에요. 그걸 미메시스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메시스. 자기를 타자에게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부드러움, 그걸 우리는 일상적으로 약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르노는 그걸 주체의 '가장 강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주체성을 통해서 즉, '주체를 더 강화시키면서 객체와 만나기'다. 근데 저기다가 독일어를 읽으시는 분은 읽으시겠지만, 'Freiheit zum Objekt'입니다. 객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유예요.

Durch라고 하는 말은 through예요, 뭘 통해서라는 말인데, Mehr는 the more(영)입니다. 더 많은 것, 그러니까 주체에게서 더 많은 것을 주면서 말하자면 주체화가 더 주체화가 되면서, '객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사실 『부정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테제,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체의 강함으로부터 창출되는 자유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합리성

제가 괄호치고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이 가기'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계몽의 변증법에서 바로 최초의 합리성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뿌리박혀 있는 것이고 합리성을 합리성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원죄 비슷한 트라우마가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없이 합리성이 유약했던 시기에 그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공포가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후 합리성은 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것, 혹은 자연적인 것, 혹은 신체적인 것, 바로 과거의 막강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모든 것, 그것들 다시 말하자면 합리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로 비동일자(Das nicht iedntisch)라고 부릅니다.

합리성이 비동일자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지배 하고 억압하지만, 그 억압이 사실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도르노가 말하는 비동일자라면,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결코 그 객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www.artnstudy.com

그렇기 때문에 객체에 대해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객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합리성으로 하여금, 합리성답게 만드는 것이고, 약간 아이러니컬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아도르노의 원칙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부정변증법(Negativ Dialektik)』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 진보주의자적 태도를 지닌 아도르노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명제가 아도르노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런 명제가 그토록 아도르노에게 되돌릴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뒤로 돌아가 봤자 에덴동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다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원시상태밖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이 잘못되기는 했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몽주의자로서, 진보주의자로서의 아도르노의 그런, 근본적인 철학적 명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합리적 주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객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유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주장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체를 더 강화할 때만 그리고 또 주체의 강화를 통해서만 즉, 앞으로 가면서만, 이 과정을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체화 과정, 잘못된 문명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콘세크벤트konsequent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미일관하게 끌고 나갈 때만 비로소 어떤 자유는 획득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주장하듯이, 혹은 파시즘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파시즘의 낭만주의나 게르만신화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유의 길은 아니라는 생각을 아도르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도르노의 철저한 계몽주의자, 모더니스트로서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사유란 무엇인가' - 기존의 사유에 대한 자기반성적 문제제기

이 명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정변증법이라고 하는, 혹은, 더 많은 주체성을 통해서 객체와 만나는 자유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도르노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사유란 도대체 뭐냐: Was ist das Denken?

www.artnstudy.com

인데, 사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에는 기존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지배와 두려움과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아도르노가 사유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는 기존적으로 있었던, 철학사적으로 주어져 왔던 모든 사유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의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유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서는, 사유 안의 깊은 상처, 사유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치유는, 자신 스스로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스스로 과정을 통해서 벗어나오지 못했던 점에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는 사유가 원초적으로 껴안고 있는 죄라는 점입니다. 죄라는 개념, 그래서 어떻게 사유가 이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거냐, 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지배죠, 타자를 지배하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이것이 죄라고 본다면,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거냐, 어떻게 대속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포에 의한 정신과 신체의 경직

제가 첫째시간이나 둘째시간에 바로 달팽이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연에 대해서, 말하자면 폭력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달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가 폭력을 당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서 달팽이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면서, 그리고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두려움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달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육질덩어리로 아직까지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을 상징하는데요.

하나의 신체로 있다가 자연의 외부상황으로 나아갈 때는 긴 어떤 목이나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정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물론 상징이지, 달팽이가 정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소위 그런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달팽이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한 덩어리의 육질로서 정신과 신체가 같이 있었던 부분이 자연으로 나아가서 폭력을 받아서 소위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아니면 비물질적인 세계를 바로, 말하자면 갖게 되는데, 그것이 공포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물질적 영

www.artnstudy.com

역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런 정신의 영역이 공포에 의해서 경직화되는데요.

달팽이의 한없이 부드러움, 육질의 신체적인 부드러움은 끊임없이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 점점 위축되면서 딱딱해지는, 정신은 공포에 의해서 딱딱해져버리고, 신체는 실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딱딱해져버리는 거죠.

정신과 신체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도르노에게는 인간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 조건이 설정되는, 발생하는 시초과정 자체가 폭력과 두려움에 의해서 이미 상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달팽이의 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포와 실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정신과 신체가 다 같이 딱딱해져버렸다.

▲ 폭력의 내면화, 그에 따른 무력한 주체의 탄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인데, 다름 아닌, 정신과 신체가 다 같이 딱딱해지도록 가해진 그런 폭력이 내재화되는 것이죠. 정신에게 내재화된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폭력, 공포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도르노의 말을 따르면 자기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본능이 생기게 되고, 자기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본능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저항으로 나가고, 그냥 폭력에 젖은 저항이기 때문에, 무력한 저항이죠.

그것들을 전부 내치는 식으로 형성이 되어 버리는데요. 신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자연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내적자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연과 물론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형되어서 정신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정신은 자연에 대한, 외적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 신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은 신체에게도 가해지고, 정신에게도 가해졌던 그 폭력이 내재화되면서 정신이 내적자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내재화, 아니면 내면화한다고 그러죠, Ver-innerlichung. 자기 안에다가 그걸 품는데 그걸 잘못 품는다, 그걸 내면화한다. 내면화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용어지만, 예컨대 우리 오래된 시어머니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도 내면화 과정이죠. 폭력의 내면화 과정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력을 가하면 며느리는 그 폭력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내면화하죠.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수과정, 한(恨)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 내면화과정인데요. 바로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똑같은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 물론 한에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한의 과정으로서 설명해낼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받은 폭력을 자기에게 다시 행사하는, 그리고 그 폭력을 확대재생산하고, 그러한 자해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자기를 유지하면 할

www.artnstudy.com

수록 결국 무엇이 되느냐, 자기에 대한 폭력을 끊임없이 가해하는 그런 폭력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체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를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한 병든 주체가 무력한 주체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포말로직에 갇혀 질식당하는 사유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사유는 하나의 자기 신체를 구체적으로 폭력화하는 어떠한 폭력의 사유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요.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의 논리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유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유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메토돌로지 Methodologie이다. 사유방법론이다, 방법론은 또한 개념운동이고요. 우리는 보통 그걸 로직(독, logik)이라고 불러요. 논리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논리가 구축된다.

사유방법으로서의 논리가 구축되는데, 그것이 포말로직Formal-Logik이다. 사유하는 방식인 그런 논리가 이 완전히 형식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학 같은데서, 포말로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르노는 포말로직을 일종의 사유의 메커니즘으로 보지요.

사유가 자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어떤 방법론으로 구축되어서, 그 방법론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여나가는 이것은 결국 사유의 자유운동이 아니라 사유의 구속운동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사, 자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방법론이 허락해주는 것만 사유하고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닌, '내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재성(Immanenz)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유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내재적 폐쇄적 감옥 속에 갇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부, 타자, 결코 말하자면 그것들과 어떤 디알록Dialog이나 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달팽이죠, 각질 속에 꼭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외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감옥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아도르노는 이거를,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를 바로 관리사회라고 부르고 현혹사회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틀 속에 로직이라고 하는 틀 속에 완전히 질식당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아도르노에게 포말로직 속에 갇혀서 질식당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심호흡을 소망하되 실천하지 못하는 사유

www.artnstudy.com

질식, 숨이 막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에게는 깊이 분쉬Wunsch,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숨 한번 크게 쉬는 거다. 사유에게는 심호흡에 소망이 있다. 사유가 그런 각질을 깨치고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깊은 사유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그러나 결코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천으로 옮겨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면 당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객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객체에 대해서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러나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에는 사실은 밀실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Immanenz라고 하는 방법론에 포말로직이 갇혀있기 때문에 무수한 사유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 '다른 것'이라고 하는 어떤 the New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도르노의 집착은 모더니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험이 없는 사유, 이건 메마른 사유이고 경험이 차단된 사유는 끊임없이 자기를 반복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뭐냐 하면 '숨막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질식', 부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 사유의 딜레마 - 『부정변증법』의 목적

그래서 부정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항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심호흡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가 스스로 실현하고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정변증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체와 객체가, 혹은 합리성과 자연성이, 또는 정신과 신체가, 혹은 나와 타자 이런 관계 또 사회론으로 들어가면 개인과 사회문제 이런 식의 주객관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객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 아포리(Aporie) 관계로 엉켜있다는 것입니다. 주체는 두려움 때문에 결코 객체에게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다. 객체는, 구체적인 어떤 폭력에 의해서 꽁꽁 자기 각질 속에 숨어있는 달팽이처럼 결코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체가 불러내도 안 나온다. 또 주체 자체는 아무리 나가려고 그래도 두려움 때문에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주체도 객체에 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객체도 주체에 문을 여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문제가 아도르노가 처하고 있는 바로 Aporie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요. 객체도 절대로 주체에게 하도 폭력을 당해가지고, 바로 객체도 전혀 이 주체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또 주체 자체는 객체에 하도 오랫동안 두려워해가지고 이 객체에 대해서 열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아무리 접근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접근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

www.artnstudy.com

하자면 사유가 아무리 이 주객관계를 바꾸어내려고 해도, 그리고 숨 한 번 쉬려고 해도, 그것의 관계성이 생기지를 않는다. 이 관계성이 또 더 딜레마인 것은, 움직이면 주체가 객체에게로 움직이면 객체는 더 폭력을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폭력을 더 당하니까 객체는 주체에 대해서 더 깜깜하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꾸려면 사유자체가 다른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 사유가 어떤 사유냐 하면, 'Gewalt freie'하다고 얘기합니다. 폭력이 없어야 된다. '폭력 없는 사유', 혹은 이 말은 그 전제가 '두려움 없는 사유'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 없이 객체에게 갈 수 있는 자유', 사유가 주체가 객체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 어떻게 객체는 주체를 향해서 스스로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부정변증법』이 개념운동을 통해가지고 찾아나가고 있는, 자유의 회로이기도 해요.

이것이 사실은 바로 『부정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항입니다. 일종의 방정식이죠. 이게 복잡한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는 주어져 있습니다.

▲ '분리'라는 문제의 출발점, 그리고 분리는 분리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도르노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인식주체, 인식기능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자기가 들어있었던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하나의 자연이 깨지는 거지요.

이 '깨지는', '찢어지는' 일인데, 아도르노는 이것을 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찢어짐이 잘 찢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폭력관계, 죄의 관계, 공포의 관계 이런 걸 통해가지고 분리가 상처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분리된 것, 즉 자연과 이성, 혹은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 분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관계인데요. 아도르노에는 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을 하게 되면, 인간이 동물처럼 자연 상태 속에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체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이 분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가 이 잘못된 어떤 상처라고 하는 이름의 트라우마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분리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www.artnstudy.com

그러나 분리된 것이 잘못 분리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려면 이 분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 동일성(Einheit)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아도르노는 '분리는 분리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를 방법론으로 전제합니다.

그 분리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분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분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통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해소시킬 수 없는 것이다.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분리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해소되는 것은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두 개의 명제가 있습니다,

▲ 명제 하나, 억압에 의한 동일화 = 비동일화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제를 아도르노는 Identität-Nicht Identität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동일성-비동일성의 관계. 그래서 동일성-비동일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 A와 B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신과 신체가 그렇듯이 A와 B는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되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 A쪽에서, 예컨대 이게 정신(A)이고, 이게 신체(B)라고 했을 때 동일성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A가 B를,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소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그냥 껴안아버린다면 아도르노는 토탈리테트Totalität, 총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껴안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분리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소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당연스럽게 여기에 폭력이 가해지고 여기서 동일화시킨 것은 나중에 비동일화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성이 신체를, 이성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음을 억지로 동일화시켜 버리면, 우리는 충분히 봤잖아요.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신체라고 하는 것을 억압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비동일화로 끝난다. 동일화를 시켜놨지만 결국은 동일화가 아니라, 이 신체에 대해서비동일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놓게 되면, 나중에는 만들어놓은 것이 안 만들려고 했던 그게 되어 버린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 명제 둘, 비동일화 = 합에 이르지 못한 채 조각에 머문 각자의 동일성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비동일화라는 건 뭐냐, A와 B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리라는 걸 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A와 B가 자체로서 분리된 상태로서 그걸 이제 파열, 체어팔렌Zerfalle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각난 상태로 각자의

www.artnstudy.com

동일성밖에 못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 해결책은 화해를 통한 합일화, 즉 부정변증법적 방법론에 의하여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은 이 분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얘기 해 드리면 아도르노는이 분리를 해소될 수 없는 것, 그러나 해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리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이 토탈리테트Totalität총체성이라는 말과 다른 식으로 진테제Synthes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변증법적 용어로 합슴이라고 얘기를 하죠. 테제These:명제가 있고 안티테제Antithese: 반명제가 있고, 이게 매개관계를 통해서 하나로,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아인하이트Einheit 단일성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합(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진테제라는 말을 빌려서, 총체성과 진테제, 합, 뭐라고 어떻게 번역해야 할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합일성이라고 얘길 합시다. 바로 총체성과 합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다.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화를 거쳐서 결국은 비동일화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합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분리를 통해서 극복해 냈을 때, 도달하게 되고 있는, 각자가 아이덴테티-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서로 무관하지 않은 어떤 통합적 관계를 지니는 상태, 이것을 바로 합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아도르노가 나중에 그걸 '화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화해상태다. 나중에 제가 뒷부분 들어가면 다시 얘기를 할텐데요.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좀 저게 되게 복잡하시죠? 근본적으로 이게 사유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힘들어도 들으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무방한 거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이 분리문제, 화해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리의 문제를 껴안고 있다, 이 아포리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하는 문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부정변증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포말로직에 갇힌 사유의 자동화된 연속성이 중단되어야 새로운 사유가 가능하다

일단, 사유가 새로운 사유,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벗어난 아도르노의 큰 원칙 중의 하나는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즉, 포말로직이라고 하는 게, 형식논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동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동화된 것은 결코 끊어짐이 없이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www.artnstudy.com

말하자면 우리가 사유를 하게 되면, 다른 식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제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유운동이라는 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포말로지칼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는 사유를 하면서 다른 사유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수행적 모순을 지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유를 하겠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유를 하겠다는 것이 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이미 다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유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를 동일한 사유로 이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언어유희는 가능하다. 이게 다른 사유다, 이거는 전통적인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운동자체가 이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추동력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전환을 하려면 어디서 꺾어줘야 하는데, 그치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방향전환이 이루어야 하는데, 이 방향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일단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콘티뉴이테트Kontinuiät라고 하는 게 디스콘티뉴이테트Diskontinuität로 일단은 잘려줘야 돼요. 중단이 되어야 된다.

▲ 그 연속성의 중단은 충격, 즉 계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유가 그냥 진행되는 한은, 절대로 이 콘티뉴이테트가 디스콘티뉴이테트로 정지될 수가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계기'가 와야 된다, 어떤 계기가 이 자동화된 사유운동의 콘티뉴이테트 속으로 뛰어 들어와야 된다.

나중에 예술이론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예술은 쇽에어파룽Schock-erfahrung 결국은 충격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 현대예술을 이해하는 일이 다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현대예술이 전통적인 예술과 소위 근대성 개념에 의해서 완전히 손을 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작품화되면 보는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고 충격 받으면 지금까지 죽 내재화되어 있는 사유운동이 중단되어 버린다.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대예술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그건 예술이론으로 건너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 이 계기가 뛰어 들어 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www.artnstudy.com

걸 독일말로 아우프브룩Aufbruch이라고 얘길 하는데요. 아우프브룩은 꽃 같은 게 이렇게 모여 있다가 꽃봉오리가 터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툭 터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이제 아우프브레헨Aufbrechen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돌연한 깨짐 같은 것들이 온다. 이 중요한 계기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디오진크라티쉬Idiosynkratisch라고 하는, 그런 병적 혐오감이라고 하는 돌발적인 체험, 이것이 사유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사유가 중단되는 계기가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린 아도르노가 우연스럽게 슈퍼마켓에 엄마 따라 갔다가 혼자 심심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컴컴한 저 뒤편에서 트럭 하나가 서있고 그 트럭의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서 갔을 는데 그 그늘진 곳에 죽어있는 개의 신체를 보았어요.

바로 그때 아도르노가 자기가 스스로, 더 이상 사유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외침, 외침이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그래서 뭐냐 하면 What is that?이라고 얘길 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 이 순간은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사유가 돌연한 계기를 만나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 또 다른 예 - 벤야민의 '인용론'

그래서 벤야민의 예를 들면 벤야민의 인용론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 계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우리는 글을 쓰다가 논문 같은 걸 쓰다가, 누구 인용을 하는데요. 그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벤야민이 이야길 하면서 내가 '마음 놓고 만날 건너다니던 산을 넘어갈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산적과 같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 다니는 산길은 뭐죠? 산보죠, 뭐. 안심하고 늘상 걸어 다니는 보폭으로, 늘상 걸어 다니는 길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다 이미 알고 걸어갈 때, 그러나 갑자기 숲에서 산적이 뛰어들어서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이전까지 산을 넘어가던 사람에게 유효했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통용이 안 돼요. 그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대처해야 되죠. 그래서 글쓰기에 있어서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가고 있는 논조가 보다 부드럽게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인용하죠. 그렇죠? 즉, 끊어진 자리를 부드럽게 봉합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봉합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 그 글 속에서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스럽게 습격하는 산적과 같다. 이렇게 벤야민이 얘기한 바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www.artnstudy.com

▲ 합리성 안에 숨겨진 신체성의 발견 - 새로운 사유의 기점

바로 이런 이디오진크라티슈idiosynkratisch들, 바로 병적혐오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무 끔찍한 그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충격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계몽의 변증법에서 지난시간에 같이 읽은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뭐죠? 나의 몸속에 움츠리고 있고 지배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던 나의 본능적인 세포들이 뭐죠. 내 몸 밖으로 튀어나간다.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잊혀진 채로, 망각된 채로, 억압된 채로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죠? 내 안에 있지만 합리성에 의해서 전부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사유가 깨닫는 것은 합리성 속에 미메시스가 있다는 것(Mimesis in ratio).

즉, 사유 속에 신체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근데 바로 사유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Ratio은 철저하게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 시스템의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관계를 만나게 되면, 아 내 안에 어떤 낯선 것이 있구나.

이 낯선 것을 내가 철저하게 통제한 줄 알았지만 이 통제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포에 직면을 하게 되면 생각이 먼저 가나요, 아니면 우리의 신체가 먼저 나갑니까? 언제나 그런 위기상황에서는, 비상사태에서는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신체성이죠.

하다못해 맨날 빌빌 졸고 집에 버스타고 가다가도 때만 되면 딱 깨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길을 가다가 누가 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리부터 지르게 되는 거고. 위기가 오게 되면, 눈 같은 거 오게 되면 내가, 온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눈부터 감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계기가 자동화된 사유의 운동 속으로 뛰어 들어오게 되면, 사유가 그때 이 콘티누이테트Kontinuität가 디스콘티누이테트Diskontiuität된다. 분절된다는 것, 중단된다는 거죠. 바로 이 중단되는 지점, 끊어지는 지점, 바로 이 끊어지는 지점이 자동화되던 것이 끊어져서, 이 계기에서, 그러나 이 계기를 이 끊어지는 지점을, 바로 아도르노가 잘 쓰는 말 중에 페스트할텐festhalten한다고 하는데, 꼭 붙든다. 이 얘기에요.

여기를 꼭 붙들고 바로 더 이상 이 끊어진 사유운동을 다시 이어가지 않는 거다. 이게 시점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아, 죽은 개구나. 뭐 그렇지 하고 금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외침에 대해서 맞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사유가 다시 원래상태운동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로 새로운 사유의 기점을 일단은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때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that이라고 하는 것, 이 that을 내가 멈추고, 뛰어 들어온 타자성에 대해서 내가 맞선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이 맞서는 것은 이해할 수

www.artnstudy.com

없는 것으로 나에게 온다는 거죠.

▲ 실재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사유운동의 형성

꽁꽁 뭉쳐 있어가지고 결코 사유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사유에 의해서 하도 억압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불신하고 그 사유의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비동일자입니다. 이 비동일자가 뛰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비동일자에 대해서 사유가 바로 접근해가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운페어슈텐트리히unverständlich하다,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체험이기 때문에 실재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고 그리고 더더욱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 즉 아무리 접근을 해가도 결코 알 수 없는 어떠한 것. 예컨대 여러분들 어떤 공포나 병적 혐오감 같은 것을 맛보게 되면,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이 뭔지 꼭 붙들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들은 만나게 되면 나중에 물론 얘기가 되지만, 사유가 끊임없이 접근을 했다가 비켰다가, 가서 무어라고 규정해 놓으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또 가야되고, 또 그쪽으로 가면 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딴 데로 가야되고, 이런 식의 끊임없는 사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아도르노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놀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사유와 당연히 이 사유는 여전히 포말로직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유예요. 그러나 이 포말로직에 대해서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 딱딱한 거, 이것이 맞서는 과정이 생기면서, 사유는 하나의 새로운 이전에 있지 않았던 하나의 자장권을 형성한다.

자장권이란 게 뭡니까? 두 개의 힘이 서로 맞붙여가지고 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운동이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양극성이 서로 마주쳐가지고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장권을 만드는 힘의 마주침의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영역 속에서 바로 이제 새로운 사유는 길 찾아가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장권 안에서 포말로직은 뭡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딱딱한 대상과 서로 마주쳐가지고 풀려고 하는 운동 속에서 뭘 느끼냐, 아도르노가 그러기를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왜? 안 풀리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유는 도대체 어떻게

www.artnstudy.com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현기증이라고 하는 것과 만난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빈델에어레겐데schwindelerregend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사유는 바로 그런 현기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현기증이란 게 뭐죠? 자기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죽 해왔던 포말로직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도저히 먹히지 않는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

▲ 미메시스적 개념운동 - 강한 사유로서 대상에 끊임없이 다가가기

그래서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버티기를 못하는 자동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냐 하면 혹은 전통적인 사유들은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금방 이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기동일화 원칙을 통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주객관계를 해결된 것처럼, 이게 사실 헤겔의 문제인데요.

즉 테제와 안티테제가 서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합테제로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것을 금방, 힘의 갈등관계를 금방 해소시켜서 원래상태의 그런 형식 논리적 영역으로 치환시킨다는 거죠. 약한 주체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일종의 퇴행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래 있었던 영역으로 되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강한 사유는, 강한 주체는 '버티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의 사유태도 중에 이 버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버티기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접근해간다. 즉 미메시스 운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유와 미메시스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미메시스적 개념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포말로직적 개념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메시스적 개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사유의 자동성에서 단절이 되고, 단절된 사유에서 새로운 자장권이 형성되고, 이 자장권속에서 사유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강한 사유를 일으키게 되는데 다름 아닌 미메시스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개념운동이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장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새로운 운동, 새로운 경험이 가능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변증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안과 밖의 변증법'이고, 하나는 '가까움과 멈의 변증법'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변증법'인데, 이거는 나중에 미학이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www.artnstudy.com

▲ 아도르노의 세 개의 변증법적 사유

그래서 사실, 안과 밖의 변증법, 가까움과 멈의 변증법, 그리고 차가움과 따뜻함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아도르노의 사유운동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분명히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개의 변증법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안과 밖의 변증법이다, 가까움과 멈의 변증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벤야민으로부터 차용된 거죠. 아우라의 개념인데. 아우라가 뭐죠? 아무리 멀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심리적 현상을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가까움과 멈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안과 밖의 변증법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그냥 멀리서 내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 또 그 안의 밖에 있는 것도 아무리 멀어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안과 밖, 그다음에 가까움과 멈이라고 하는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독특하게 경험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벤야민은 아우라라고 불렀습니다.

▲ 아도르노의 사유- 라티오와 미메시스의 동시 작용에 의한 경험적 인식운동

이 아우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경험현상이에요. 사유가 경험을 할 때, 경험이라는 건 신체적 모티브가 같이 움직일 때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유가 신체적인 계기를 버리고, 하게 되면 오로지 사유의 결과, 포말로지컬한 개념적 결과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신체적 계기와 같이 움직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안과 밖, 멈과 가까움, 따뜻함과 차가움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사유가 독특한 하나의 사유의 포말로직으로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어떤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걸 경험이라고 불러요.

즉 라티오Ratio:합리성하고 미메시스가 같이 운동을 일으키면 어떤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인식은 더 이상 포말로지컬하거나 합리적인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 인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자장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주객관계운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주객관계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문제되지만, 이 인식이 경험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운동이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www.artnstudy.com